진로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박 순 주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업과정을 마무리하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 발전과 더불어 직업의 유형과 내용이 다양화되면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어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돕기 위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고 교육과정 내에 진로 관련 수업이나 재량 또는 특별활동을 편성하고 있으나 진로교과목의 채택률은 5.5%에 불과하고 재량 또는 특별활동은 일회성, 단발성 행사로 진행되는 등 진로교육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김승보, 방혜진 2010). 더불어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과도한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자신의 적성과 진로 등을 탐색할 시간이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57.0%가 학원, 과외 수강 또는 온라인 강의 청취에 매일 5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또 4년제 대학생들의 37.7%가 성적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였고 대학생이 된 후에도 50.0%가 미래에 종사할 직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발달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로서 진로자아 개념이 확립되어 가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Super, 1953; 박은선 2008에 인용됨). 이 단계의 발달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탐색 능력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진로발달 정도는 진로정체감이나 진로탐색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진로탐색 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도 높게 유지되고, 더 많은 진로탐색행동을 하며 진로적응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옥현, 2007; Solberg, Good, Fischer, Brown, & Nord, 1995).

국내 진로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취업정보센터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심리검사와 해석 또는 취업정보제공이나 취업강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면담면 상담 등을 통해 진로 지도를 받고 있다(이지연, 2001). 이런 유형의 진로지도는 자율 선택적 활동이므로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효과적이지만, 자기주도성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참여하지 못하거나 일회성 참여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례로 4년제 대학생들의 평균 지도교수 면담횟수는 연간 2.7회에 불과하고, 진로관련 면담의 경우 85.6%가 면담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심층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대학에서는 진로교과목을 개설하여 진로지도를 하고 있다. 교과목 수강 형태의 진로 지도는 학생 개개인의 문제를 직접 지도해 줄 수는 없으나 많은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학점이 부여되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윤영란, 2007). 그러나 대부분 교양선택이나 일반선택 과목으로 개설되고 학과나 학년 구분 없이 일반적인 진로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이지연, 2001) 전공별 맞춤형 진로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어 : 진로, 발달, 교육, 간호 대학생

1)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sparkgold@hanmail.net)

투고일: 2012년 2월 29일 심사완료일: 2012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2일

간호 분야는 의료영역이라는 특수성과 간호사 수요 증가에 따른 직업 획득의 용이성 등으로 간호학 지원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능능력시험 이후(50.3%)나 고등학교 3학년 때(34.2%) 간호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방경숙, 조진경, 2008). 즉,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 역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나 여유 없이 상황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학에 입문한 이후에도 다양한 진로를 찾기보다는 80.9%의 대상자들이 국내 종합병원에 취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해외 취업을 원하는 소수(2.5%)만이 국내취업을 원하는 간호 대학생들보다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영지, 김인경, 2011). 또한 간호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간호학과 교수들도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병원 등 의료기관의 간호사 채용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조희, 이규영, 2006).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 졸업 후 간호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직의도가 높아져(김정희, 박성애, 2002) 의료인력 양성의 비효율성과 간호발전의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에도 신규 간호사들의 13.0%가 1년 후에 이직을 하고, 37.0%가 이직의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Kovner, Brewer, Fairchild, Poornima, Kim, & Djukic, 2007), 간호 대학생들에게 취업 전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고려를 하도록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요자인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진로지도 서비스는 ‘전문가와의 대화’와 ‘진로 및 직업탐색 교과목 수강’이었고(임언, 정윤경, 백순근, 2003) 간호 대학생들은 간호사 채용방법이나 면접, 필기시험 내용, 직종별 직무 내용 등(추수경, 전은미, 1998) 전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로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이공계 특성을 반영한 전공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용자 평가에 관한 연구(임언, 이지연, 윤형한, 2004)에서도 58.5%의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이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전공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간호 분야 진로 관련 연구는 대부분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고영지, 김인경, 2011), 진로에 대한 인식(방경숙, 조진경, 2008), 진로정체감(최은희, 2009),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문인오, 이경완, 2010)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진로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연구(권윤희, 박오계, 2010)에서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력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진로정체감의 변화정도를 파악하였으나 이는 진로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에게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진

로교육의 효과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 특성을 포함한 진로교육 수업내용을 구성하여 간호 대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진로교육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학생을 위한 교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간호 대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진로교육이 대상자들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학과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 둘째, 진로교육 내용에 대한 간호 대학생의 선호도를 확인한다.
- 셋째, 진로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진로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진로발달 즉, 진로정체감,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실험연구이다. 연구에서는 먼저 진로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내용을 구성한 후 이를 간호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진로교육 내용 구성 및 적용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내에서 진로교육을 위한 교과목 운영 보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진로교과목의 수업목표는 이영대, 임언, 이지연, 최동선 및 김나라(2004)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애 4단계 진로교육 목표를 적용하였다. 이 4단계는 ‘진로준비’의 단계로서 대학생 또는 취업을 고려하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이다.

이와 함께 진로교육 내용의 구성은 미국의 국가진로개발지침(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에서 제시하는 진로개발 프로그램 구축 틀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 틀은 개인의 사회적 개발, 교육적 성과와 평생교육, 진로관리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지연(2001), 윤영란(2007) 등 우리나라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분석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진로개발 프로그램 구축 틀의 3개 영역에 따라 진로교육의 영역을 크게 자기이해, 교육 및 직업적

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별로 2개~4개의 주제를 두었다.

교육내용은 대학 교과목으로 적용하기 쉽도록 쿼터제로 운영되는 E 대학교 간호학과 학사운영 체계에 맞추어 전체 교육내용을 1주에 2시간씩 8주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주제별 교육시간은 자기이해에 1주, 교육 및 직업적 탐색에 3주, 진로계획 및 관리에 4주를 배정하였다<Table 1>.

구성된 진로교육 내용의 적용을 위해 8주 동안 매주 주제에 따라 강의와 개별 활동, 전문가 초빙, 역할극, 프리젠테이션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정보가 필요한 주제의 경우 교수자가 먼저 강의를 한 후 학생들에게 활동시간을 부여하였다. 시간 내 끝내지 못한 활동은 과제형식으로 부여하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도록 격려했다. 전문가 초빙은 임상에서 간호사 채용면접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간호부장을 초빙하여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와 함께 면접실습 및 학생들과 토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역할극은 모의면접에서 학생들이 면접관과 지원자의 역할을 각각 경험한 후 면접결과 분석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프리젠테이션은 각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2011년 4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8주 동안 D시 E대학교 간호학과 진로설계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간호학과 4학년생 가운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학생들이다. 8주 동안 동일한 강의실에서 진로교육이라는 실험처치를 해야 하는 이유로 진로설계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 전수를 편의표집 하였다. 이중 수업에 결석하거나 설문지 응답이 불충분한 5명을 제외한 총 71명(93.4%)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단일군 실험설계연구에서 평균비교분석에 사용될 적정 표본크기를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효과크기를 0.5, 검정력을 0.80, 유의수준을 0.05로 하였을 경우 최소 표본의 수는 34명이 필요하였으며 따라서 연구의 표본 수 71명은 충분한 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도구

● 진로교육

진로교육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인식하고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

<Table 1> The career education course

Domain	Week	Content	Activity
Self knowledge	1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portance of career education Self-understanding Building a positive self-conce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Identifying strength and weakness Mind mapping
	2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anges in workplace and education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career Lifelong learning and career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Drawing family career map
Educational and career exploration	3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scovering nursing career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nursing career Nursing statistics License and qualification system in nursing Understanding nursing qualification system Description of nursing licen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ploring the web pages of hospital and health organizations
	4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necting self-understanding and nursing career Finding right nursing care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ilding career roadmap
Career planning and management	5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king career development plan Short and long-term goal setting Writing resu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Writing resume
	6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king career development plan (continued) Planning and presenting career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acticing presentation
	7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veloping self-promotion skills Convincing others of my value Preparing for job interviews Do's and don'ts of job interview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cture from experts in nursing
	8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hearsal for a job interview Analysing interview check lists Feedback on the interview rehears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Role play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종합적인 활동이다(윤영란, 2007). 본 연구에서 진로교육은 E대학교에서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에 신설된 전공선택 과목인 “진로설계” 교과목을 지칭하며, 진로교과목 수강이라 함은 2011년 1학기 진로설계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대해 얼마나 명료하고 안정된 상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Holland, Daiger, & Power, 1980). 본 연구에서는 Holland 등(1980)이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MVS)의 정체감 척도를 토대로 권윤희(2002)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4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김봉환(1997)이 먼저 변안하여 18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권윤희가 다시 수정한 것이며,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봉환(1997)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9, 권윤희(2002)의 연구에서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 및 진로 선택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대감(Solberg 등, 1994)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옥현(2007)이 Solberg 등(1994)이 개발한 진로탐색효능감 척도(CSED: Career Search Efficacy Scale)를 5점 Likert 척도, 4개 영역 20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직업탐색효능감, 면접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 및 개인적 탐색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탐색을 수행할 수 있는 확신 정도가 높다. 신뢰도는 최옥현(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과 탐색을 위해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다(최동선, 2003). 본 연구에서는 최동선(2003)이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탐색행동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자기탐색과 환경탐색 2개 영역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탐색 및 환경탐색 수준이 높고,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직무 및 직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정도를 의미한다(Super & Knasel, 1981). 진로적응성은 개인이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고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자신의 능력, 새로운 직무 책임들에 대한 편안함의 정도, 그리고 예상 불가능한 사건들이 진로계획을 변화시킬 때 회복하는 능력을 측정한다(최옥현, 김봉환, 2006).

본 연구에서는 Rottinghaus, Day와 Borgen (2005)이 개발한 Career Futures Inventory(CFI)를 최옥현과 김봉환(2006)이 번안 및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다.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85(Rottinghaus 등, 2005)이었고, 최옥현과 김봉환(2006)의 연구에서는 .78,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자료 수집 절차 및 방법

진로교육 시작 전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자발적인 참여, 참여자를 위한 비밀보장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교과목 수강과 관련하여 학생 개인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자필 동의를 받은 다음 연구를 진행하였다. 진로교육 전후에 진로정체감,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적응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진로교육 후 수업내용에 대한 학습자 평가를 위해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내용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는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고, 설문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약 15분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기술통계량을 도출하였다.
- 진로교육 내용에 대한 선호도 순위는 실수와 백분율로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 진로교육 전후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적응성 정도와 그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 대학 내에서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육내용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보기 때문에 대조군 설정이 어려워 단일군 전후설계를 사용하였다. 실험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일 대학에서 이루어진 교과목

적용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여자가 8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 범위는 21세에서 27세로 평균연령은 22.2 ± 1.6 세였다.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88.7%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52.1%가 취업이 보장되는 장점 때문에 간호학과에 지원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간호사가 갖는 좋은 이미지 때문에 지원한 대상자는 없었다. 대상자의 71.8%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간호학과를 선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5.2%는 대학 원서접수 기간 중에 학과를 결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에 국한되지만 다른 학과를 다니다가 또는 다른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간호학과에 입학한 경우도 있었다 <Table 2>.

진로교육 내용의 선호도

진로교육 내용의 10개 주제에 대한 대상자들의 선호도를 비교하기 위해 교과목 수강 후 교육내용에 대한 선호도 평가를 하였다. 평가는 10개 주제에 대한 선호도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주제별로 1순위와 2순위 응답 빈도를 중심으로 선호도를 비교하였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내용은 모의면접과 분석으로 대상자의 31.0%가 1순위, 21.1%가 2순위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나에 대한 이해로서 26.8%가 1순위로 선택하였고, 14.1%가 2순위로 선택하였다. 이외에도 자기 홍보능력 개발과 면접준비의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직업과 교육세계의 변화와 간호관련 자격제도를 선택한 경우는 1순위와 2순위의 합계를 기준으로 각각 2.1%에 불과하여 선호도가 낮았다 <Table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71)

Variables		n	(%)
Gender	Male	9	12.7
	Female	62	87.3
Age	21	34	47.9
	22	14	19.7
	23	11	15.5
	≥24	12	16.9
	Mean±SD	22.2±1.6	
Satisfaction with nursing	Very satisfied	15	21.1
	Somewhat satisfied	48	67.6
	Somewhat dissatisfied	7	9.9
	Very dissatisfied	1	1.4
Reason to choose nursing	Easiness to get a job	37	52.1
	Professionalism	11	15.5
	Family or other's recommendation	11	15.5
	Vocation or willing to serve	6	8.5
	Academic performance	5	7.0
	Good images of nurses	0	0.0
	Others	1	1.4
Time to choose nursing	Grade 1 to Grade 6	1	1.4
	Grade 7 to Grade 9	2	2.8
	Grade 10 to Grade 11	14	19.7
	Grade 12	26	36.6
	University applying season	25	35.2
	Others	3	4.2

교과목 수강전후 진로발달의 변화양상

●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교과목 수강 전 2.70 ± 4.4 점에서 수강 후 2.71 ± 3.1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20$, $p = .843$) <Table 4>.

●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효능감은 교과목 수강 전 3.21 ± 5.5 점에서 수강 후

<Table 3> First and second preferred educational contents

(N=71)

Educational contents	as 1st Choice		as 2nd Choice		Total	
	n	(%)	n	(%)	n	(%)
Rehearsal for a job interview	22	31.0	15	21.1	37	26.1
Self-understanding	19	26.8	10	14.1	29	20.4
Preparing for job interviews	6	8.5	13	18.3	19	13.4
Developing self-promotion skills	9	12.7	9	12.7	18	12.7
Making career development plan	5	7.0	5	7.0	10	7.0
Connecting self-understanding and nursing career	1	1.4	8	11.3	9	6.3
Importance of career education	5	7.0	2	2.8	7	4.9
Discovering nursing careers	3	4.2	4	5.6	7	4.9
Changes in workplace and education	1	1.4	2	2.8	3	2.1
License and qualification system in nursing	0	0.0	3	4.2	3	2.1
Total number of response	71	100.0	71	100.0	142	100.0

<Table 4> Comparisons of career identity,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adaptability before and after career education (N=71)

Variables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t	p
	Mean±SD	Mean±SD		
Career identity	2.70±.44	2.71±.31	-0.20	.843
Career search efficacy	3.21±.55	3.36±.53	-2.57	.012
personal-exploration	3.25±.66	3.48±.59	-2.89	.005
interview	3.21±.68	3.23±.65	-0.26	.794
relationship building	3.12±.69	3.34±.63	-2.66	.010
job exploration	3.26±.58	3.39±.56	-1.99	.051
Career exploration	2.14±.57	2.45±.63	-4.62	<.001
self-exploration	2.56±.61	2.71±.59	-1.93	.058
environmental exploration	1.83±.62	2.26±.74	-5.92	<.001
Career adaptability	3.73±.54	3.96±.48	-3.51	.001

3.36±.53점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57$, $p=.012$). 진로탐색효능감을 하부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개인적 탐색 효능감($t=-2.89$, $p=.005$)과 관계구축 효능감($t=-2.66$, $p=.010$)은 교과목 수강 전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면접효능감과 직업탐색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은 교과목 수강 전 2.14±.57점에서 수강 후 2.45±.63점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4.62$, $p<.001$). 진로탐색행동의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자기 탐색행동은 교과목 수강 전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t=-1.93$, $p=.058$), 환경탐색행동은 교과목 수강 전 1.83±.62점에서 수강 후 2.26±.74점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92$, $p<.001$)<Table 4>.

●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교과목 수강 전 3.73±.54점에서 수강 후 3.96±.48점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51$, $p=.001$)<Table 4>.

내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위해 교과목으로서 진로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전공 만족도를 보면 연구 대상자들의 88.7%가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전공에 대해 만족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선행연구들(고영지, 김인경, 2011, 권윤희, 곽오계, 2010)과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학 선택 동기의 경우 50.0% 이상의 대상자가 취업보장 때문에 선택하였고, 전문직 특성과 주변권유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각각 15.5%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상자의 49.2%가

취업의 용이성 때문이라고 응답한 고영지와 김인경(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취업 용이성이 간호학을 선택하는 주요 동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0여년 전에 수행된 성현란(1978)의 연구에서 과반수 이상이 주위의 권유(31.1%) 또는 간호직 자체가 좋아서(25.1%)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취직의 용이성 때문에 선택한 응답자는 4.3%에 불과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사회 전반의 취업난이 간호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학 선택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후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0.0%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약 절반가량인 35.0% 정도가 대학 원서접수 기간 중에 간호학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여 선행연구들(문인오, 이경완, 2010; 방경숙, 조진경, 2008)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간호학을 선택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오랫동안 숙고한 후 진로를 선택하기 보다는 대학 진학에 임박하여 짧은 기간에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교육 수강 전 연구대상자들의 진로정체감은 4점 척도에서 2.70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과 2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권윤희와 곽오계(2010)의 연구결과 2.07점이나 간호과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최은희(2009)의 연구결과 2.27점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MVS 도구를 사용하여 타 전공 4학년생의 진로정체감을 조사한 손만익(2006)의 연구 결과인 2.57점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4학년생이 2학년생 또는 3학년생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협력학습 프로그램(권윤희, 곽오계, 2010)이나 진로교육(손만익, 2006; 윤영란, 2007)을 적용한 후에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로교육 수강 후 대상자들의 진로정체감은 2.71점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진로정체감이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심상을 갖추고 있는 정도 (Holland J.L. & Holland J.E., 1977; 윤영란, 2007에 인용됨)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학과 4학년생들의 경우 취업영역이 한정되고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타 전공자나 다른 학년에 비해 진로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진로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교육 수강 전 5점 만점 중 3.21점으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은선, 2008)의 3.33점이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문인오, 이경완, 2010)의 3.37점 보다는 다소 낮았다. 그러나 진로교육 후에는 진로탐색효능감이 3.36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진로교육 수강 전과 비교하여 수강 후에 개인적 탐색효능감과 관계구축 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이 학생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파악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교육 수강 전 5점 만점 중 2.14점으로 보통 이하의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인오와 이경완(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 결과는 간호 대학생들의 경우 적극적인 진로탐색행동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진로정체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공을 이미 선택하여 간호사라는 진로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타 분야 학생들에 비해 진로탐색행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적응성은 진로교육 수강 전에 5점 만점 중 3.73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옥현, 2007)의 3.69점과 유사하였으나 수강 후에는 3.96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간호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구체적 진로 유형과 직무성격 및 특성 등을 접하므로써 자신의 능력이나 직무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과내용의 선호도는 모의면접과 분석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수업은 강의와 활동수업을 병행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정보가 필요한 주제의 경우 교수자가 강의를 하였고, 자신의 장단점 찾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기, 모의면접 및 분석 등은 활동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진로지도에 강의식 수업보다 활동수업이, 그리고 활동수업보다 상담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윤영란, 2007)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활동수업에 대한 대상자들의 반응이 높게 나타난 점은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진로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내용으로 교과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교과목으로서 진로교육은 간호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분야

가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간호 대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제공은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적용하여, 교과목으로서 진로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진로교육은 간호 대학생의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적응성 정도를 높여주어 대상자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 간호 대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은 모의면접과 분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과목으로서 진로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을 돕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진로교육 방법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 수업이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체계적인 진로교육 내용의 구성을 위해서는 학년에 따른 진로발달의 차이를 확인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고영지, 김인경 (2011).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 행동 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62-71.
- 권윤희 (2002).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권윤희, 박오계 (2010).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활용 소집단 협력학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11), 4441-4448.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승보, 방혜진 (2010). 학교 진로교육의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 *THE HRD REVIEW*, 13(2), 97-114.
- 김정희, 박성애 (2002). 일반 간호사의 대처전략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8(10), 97-106.
- 문인오, 이경완 (20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83-91.

- 박은선 (2008). *아버지 애착과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
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방경숙, 조진경 (2008). 일개 간호대학생과 졸업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88-97.
- 성현란 (1978). 일부 간호학생의 여성상과 간호상과의 상관관
계. *대한간호학회지*, 8(2), 39-47.
- 손만익 (2006). *대학생의 진로교과목 수강여부에 따른 진로결
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및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천안.
- 윤영란 (2007).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진로
교과목 수업과 진로집단상담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이영대, 임연, 이지연, 최동선, 김나라 (2004). *생애단계별 진
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수립*.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이지연 (2001).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연, 이지연, 윤희한 (2004).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
탐색프로그램 개발(II)*.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연, 정윤경, 백순근 (2003). *이공계 대학생 전공 및 진로탐
색 프로그램 개발(I)*.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희, 이규영 (2006).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2), 163-173.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및 애착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최옥현 (2007).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
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서울.
- 최옥현, 김봉환 (2006).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
Career Future Inventory(CFI)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 연구*,
7(3), 821-833.
- 최은희 (2009).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1), 15-21.
- 추수경, 전은미 (1998). 간호학사 특별과정생의 직업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5(2), 250-266.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010) - 제6차(2009)년도 자료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Kovner, C. T., Brewer, C. S. Fairchild, S. Poornima, S. Kim,
H. & Djukic, M. (2007). Newly licensed RNs' characteristics, work attitudes and intentions to work. *Th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07(9), 58-65.
-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2011).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Web site: <http://associationdatabase.com/aws/NCDA/pt/sp/guidelines>
- Rottinghaus, P.J., Day, S.X., & Borgen, F. H. (2005). The
Career Futures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3-24.
- Solberg, V. S., Good, G. E., Nord, D., Holm, C., Hohner, R.,
Zima, N., Heffernan, M., and Malen, A. (1994). Assessing
career search expectation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Search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 111-123.
- Solberg, V.S., Good, G.E., Fischer, A.R., Brown, S.D., &
Nord, D. (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455.
- Super, D.E. & Knasel, E.G. (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9(2), 194-201.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on Career Development for Nursing Students

Park, Soonjoo¹⁾

1)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Eulj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build the career education course for nursing students' career development and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education. **Method:** The study used a one-group pre- and post-test design and the surveys were carried out from April to June, 2011. The participants were 71 undergraduate seniors of department of nursing in E university. The data were obtained via questionnaires survey before and after taking the cours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using SPSS 19. **Results:** 88.7% of the subjects responded being satisfied with their major. The scores of career search efficacy ($t=-2.57$, $p=.012$), career exploration ($t=-4.62$, $p<.001$), and career adaptability ($t=-3.51$, $p=.001$)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the education. Networking ($t=-2.66$, $p=.010$) and personal exploration efficacy ($t=-2.89$, $p=.005$)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test. Between two subgroup of career exploration, only the environment exploration ($t=-5.92$, $p<.001$) significantly improved.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identity. **Conclusion:** From this study, career education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he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areer education as a subject would be an efficient way for career development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Nursing stude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Soonjoo

Department of Nursing, Eulji University

77, Gyeryong-ro 771 beon-gil, Jung-gu Daejeon, 301-746, Korea

Tel: 82-42-259-1720 E-mail: sparkgold@hanmail.net